

2. 마을의 지명유래*

1) 동 지명

① 용수동(龍水洞)

용수동은 1949년 8월 15일 동제 실시에 따라 와룡동과 삼거동을 합하여 용수동이라 했다.

삼거동(三巨洞)

삼거마을은 법정동으로 순천시에서 서북방향으로 9km 지점에 위치하고 북쪽으로는 삼산동 석현부락과 뒤쪽은 승주읍과 경계하고 있다. 삼거는 세 차례에 걸쳐 전쟁이나 큰 우환이 있을 때마다 이곳으로 피난왔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또한 삼거는 세 산(국사봉·박덕봉·삼교봉)과 세 성씨(박씨·이씨·임씨), 세 교량의 의미가 있다고도 한다. 삼거동은 본래 순천군 소안면 지역으로서 세 갈래 길이 있으므로 삼거리로 하였는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송학리를 병합하여 삼거리라 해서 순천면에 편입되고 1949년 동제 실시에 따라 용수동 관할이 되었다.

송학(松鶴)

송학마을은 순천시에서 서북방향으로 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천마풍(天馬風)이라는 고개와 상사면 도월리 미곡마을과 인접하고 있으며, 삼거리는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송학마을은 소나무 숲이 울창한 뒷산에 학이 많이 찾아들어 송학이라 부르며, 천마풍·갈골·용부골·코재라고도 한다.

풍치(風峙)

풍치마을은 순천시에서 서북방향으로 10km 지점에 있으며 해발 450m의 고지대로, 승주읍 신성리와 인접한 용수동의 가장 끝 동네이다. 풍치마을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마을재(고개)를 넘을 때마다 거센 바람을 만나게 되므로 바람재 또는 풍치라 부르고 있다. 그리고 용수동에서 삼거리 서남쪽에 있는 마을에 분사(芬寺)라는 절이 있었다고 구전한다. 삼거동에는 용쏘배기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용쏘는 작은 폭포수를 뜻한다.

와룡동(臥龍洞)

와룡마을은 순천시에서 서쪽방향으로 7km 지점에 위치하며, 해발 330m로 상사면 도월리·응령리·흘산리와 인접된 마을이다. 그리고 이 마을의 형국이 마치 누워 있는 커다란 용처럼 생겼다고 하여 와룡이라 했다 한다. 그리고 와룡마을에는 늘느리뻘뻘 장구목고개, 피랑고개(피리고개), 북바우, 고주골이 있다. 이 마을은 본래 순천군 소안면 지역으로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범죽리(짐대골, 질모랭이, 막냉이, 도둑바구)와 장내리(씩다리 걸안치기, 고름장 모퉁이) 일부를 병합하여 와룡리라 해서 순천군에 편입되고 동제 실시에 따라 용수동 관할이 되었다.

* 제4절 2항목은 이현중(李鉉宗) 집필임.

범죽(帆竹)

범죽마을은 순천시에서 서쪽 4km 지점 제2상수원지 북쪽에 있으며, 마을의 형국이 배모양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마을 주변에 대나무가 많이 있어서 죽(竹)자가 마을이름에 쓰였다고 한다. 이 마을은 300여 년 전 와룡주민들이 이주하면서 형성되었고, 이 마을을 큰 동네, 건너마을인 질모랭이를 작은 동네라고 한다. 그리고 이 마을이름을 산제(山諸)끝·쟁비장골·돛대봉·고름장터로 불렀으며, 민속으로는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돛대를 세워 마을의 번영을 빌었다는 짐대세우기가 있다.

아교(芽橋)

아교마을은 순천시에서 서쪽으로 3km 지점에 위치하며, 옥룡교(玉龍橋)를 경계로 해서 옥천동과 행정구역이 나누어진다. 서쪽으로는 상사면 응령리와, 북쪽으로는 노두(路頭)마을과 경계하고 있다. 이 마을은 처음에 삼다리 노디골로 불렸는데 33개 동 행정구역 개편 때 아교로 개칭되었다. 삼다리를 삼다리라고도 하는데 삼이란 짝의 발음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아교란 우리말로 짝다리이기 때문이며 노디라는 명칭은 노디돌에서 비롯되었다. 노디돌이란 말을 타거나 내릴 때에 발돋움으로 쓰려고 대문 앞에 놓인 큰 돌을 말하는데, 이 마을주민들이 말하는 노디란 징검다리를 뜻하고 있다. 그리고 옥룡교가 가설되기 이전에는 징검다리로 건너다녔다는 말이 되며 삼(짝)다리 노디골이라 불렀던 것이다.

마을 뒤편에 상사면으로 통하는 ‘땀고개’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고개를 넘으려면 힘이 들어 땀을 많이 흘렸다고 해서 옛날부터 땀고개로 부르고 있다.

② 영옥동(榮玉洞)

영옥동은 1949년 8월 15일 동제 실시에 따라 영동과 옥천동을 합하여 영옥동이라 했다.

옥천동(玉川洞)

옥천마을은 순천시에서 서북방향으로 약 0.5km 지점에 위치하여 남으로 저전동이 있고, 서쪽에는 용수동이 있으며, 북쪽에는 행금동이 인접해 있다. 이 마을은 선비들이 유배되어 살았던 곳으로 산수가 좋고 유적들이 많다. 이 마을은 1500년경에 담안동네(장내)로 불렸다가 옥천(玉川)의 이름을 따서 옥천동이라 했다. 옥천동은 본래 순천군 소안면 지역인데, 1914년 일제의 행정개편으로 장내리 일부를 분할해서 옥천이라 하여 순천면에 편입되고, 1949년 동제 실시에 따라 영옥동의 관할이 되었다.

영동(榮洞)

영동은 본래 순천군 소안면 지역인데, 1914년 일제의 행정개편에 따라 서내리·청수리·장내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일본식인 영정(榮町)으로 개칭하고 순천면에 편입시켰다. 그후 1949년 동명 변경으로 정을 동으로 고치고 영옥동의 관할이 되었다.

③ 행금동(幸金洞)

행금동은 1949년 8월 15일 동제 실시에 따라 행동과 금곡동을 합하여 행금동이 되었다.

금곡동(金谷洞)

금곡동 뒷산은 난봉산(鸞鳳山) 줄기의 기슭으로 일명 매곡산성(梅谷山城)이라 하며, 순천성(昇平城)을 중심으로 서문 밖을 말한다. 금곡동은 본래 순천군 소안면 지역이었는데, 1914년 일제의 행정개편으로 청수리와 장내리의 각 일부를 합하여 금곡리라 해서 순천면에 편입되고, 1949년 동제 실시에 따라서 행금동의 관할이 되었다. 즉, 금곡동은 일제시대의 명칭이며, 본래 지명은 청수마을로 난봉산 계곡의 맑은 물을 지명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장내마을은 담안마을로 성문 안쪽을 말하고 있다. 이 두 개의 큰 마을 외에 향교 뒤편 서쪽에 지봉마을(芝峯書院)과 청숫거리(淸水谷) 남쪽에 울논배매미마을이 형성되었다. 이 서문밖(西門外)마을의 뒷산인 매곡산성의 연혁을 살펴보면, 금곡동마을들은 이미 후삼국시대 이후부터 정착한 것으로 추측된다. 약 100년 전에는 김해 김씨가 행동 일대에 주로 살았다고 한다.

행동(行洞)

행동은 본래 순천군 소안면 지역인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북내리·청수리·서내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왜식으로 행정이라 하다가 1949년 동명 변경으로 정(町)을 동으로 고치고, 동제 실시에 따라 금곡동과 합쳐 행금동의 관할이 되었다.

④ 매곡동(梅谷洞)

매곡동(저우실·매산등·북문밖 포함)마을은 본래 순천군 소안면 지역으로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북정지(北亭)·우명(牛鳴, 구석돌 포함)·못등(池磴)·청수리와 병합하여 매곡리라 해서 순천면에 편입되었고, 다시 1949년 순천시 매곡동으로 바뀌었다.

매곡은 토박이 말로 저우실(冬谷)이라고 한다. 겨울실→겨△실→겨우실→저우실의 변화로 풀이된다. 매화는 설중매(雪中梅)란 말처럼 겨울의 추운 기후에도 피고, 오행(五行)으로 북(北)은 겨울(冬)을 뜻한다. 저우실은 시가지 중심에서 500m 북쪽 성 밖에 있다. 지금도 이 마을 김관수의 집 뜨락 남향 언덕배기에는 양력 1월 초순에서 2월 초순 사이에 물에서 가장 먼저 매화가 피어 신문에 보도되는 관행이 있다. 그리하여 저우실과 매곡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한다.

⑤ 삼산동(三山洞)

1949년 8월 15일 동제 실시에 따라 가곡·용당·석현의 3개 동을 합하여 삼산동이라 했다.

가곡동(佳谷洞)

가곡마을은 순천시를 중심으로 북서쪽에 위치하며, 구전에 따르면 산수가 수려하여 가곡이라 하였다. 고려 충렬왕 때 유명한 관기인 호호(好好)의 출생지로 아름다울 가(佳)자로 했다고도 한다. 또 마을에 햇별이 잘 들고 기온이 따뜻하여 양지마을이라 하기도 한다. 가곡은 비단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의 가매장터가 이름으로 유래된 것으로 짐작되는데 본래 가곡동은 소안면 지역으로 가실 또는 가곡이라 한다. 1914년 일제의 행정개편으로 고지리·신기 일부를 병합하여 가곡리라 해서 순천면에 편입되고, 1949년 동제 실시에 따라 삼산동의 관할이 되었다.

고지(古旨)

고지는 '곳'에서 변화한 것으로 들 가운데로 내민 땅이라는 뜻이다. 가곡동에 있는 마을 중

가장 먼저 생겼다고 하며, 고지라는 이름 이전에는 윗마을을 건너몰이라 부르고 고지마을은 가실이라 했다. 구전에 따르면 한원검이 기름단지를 들고 가다 깨뜨렸는데, 깨진 그 장소에서 샘물이 솟았다 하여 기름고자를 써서 고지(膏旨)라 하였다 한다.

신기(新基)

신기마을은 순천시에서 북쪽으로 오리정과 인접된 마을로 원래 이름은 고지퇴이고, 그 이후에 새터를 한자 이름대로 신기라 고쳤다고 한다. 원가곡 동북쪽과 서면의 경계에 있는 마을로 산줄기의 지형이 북자루처럼 생겼고, 산줄기가 마을의 북쪽을 둘러서 가리고 있는 곳이 북차마을이라 한다.

석현동(石峴洞)

석현마을은 순천시에서 북쪽으로 2km 지점에 위치하며, 석현은 돌고개라고도 한다. 이 마을의 땅은 깊이 파면 황토인데 표면에는 돌이 많이 있다. 이 마을은 저수지 밑의 상보(上淤)라는 곳에 터를 잡았다가 보가 너무 깊어 위험하여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석현은 본래 순천군 소안면 지역으로 돌고개 밑이 되므로 돌고개 또는 석현이라 하였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조비리·신기리 일부를 병합하여 석현리라 해서 순천면에 편입되었고, 1962년 동제 실시에 따라 삼산동 관할이 되었다.

오리정(五里亭)

오리정마을은 오리정다리 아래쪽으로 현 한국방송공사자리와 그 뒤쪽마을을 가리킨다. 오리정은 옛날 부(府)의 중심에서 오리(五里)가 되는 지점에 있던 정(亭)을 말한다. 원래 오리정 강변에는 자손이 없거나 주인 없는 무뢰신(無賴神)들을 위해서 합동제를 드리던 장소가 있어 여제막(廬祭幕), 이제막골이라 부르며 가장실이라고도 한다.

조비(鳥飛)

조비골은 순천시에서 북서방향으로 6km 지점에 위치하며, 엉골(어원골·너른골)과 대조된 좁은 골이란 뜻이다. 또 강림골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데, 고려 말 정승이었던 강림이라는 분이 역적으로 몰려 귀양살이를 한 데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한다. 어느 도사가 마을이 새가 날아가는 형국이라 하여 조비골이라 했다고도 한다.

용당동(龍堂洞)

용당동은 본래 순천군 소안면 지역으로서 용당이 있었으므로 용당 또는 용댕이라 하였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죽림리·업동리·서면의 강청리·망북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용당리라 해서 순천면에 편입하였고, 1949년 동제 실시에 따라 삼산동의 관할이 되었다.

망북(望北, 닷우개)

망북마을은 순천시에서 북동방향으로 3km 지점에 위치하며 서면과 인접해 있다. 구천군 충숙공 이수의 「망북정기」에 망북의 유래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다.

구천군 충숙공은 왕가의 종친으로 광해조 때 이이첨 일당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자 18명의

종친들을 이끌고 논척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자 그 일당이 공을 포함하여 1617년 4월 4일 공의 나이 50세 때 순천으로 귀양오게 되었다. 공은 순천에 도착하여 성남 쪽 연자교(현 남문다리)에서 한마당쯤 되는 곳에 살다가, 북쪽 망북(다래골·닷우개)으로 옮겨 초가 한 채를 지어 망북정이라 부르고 손수 기문을 지었다. 이때 순천부사로 있던 지봉 이수광이 망북을 자주 드나들면서 모든 정성과 예의를 다하여 모신 것이 와전되어 이수광 유적비라고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이 비석은 구천군 충숙공의 비석으로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8호이다.

원용당(元龍堂)

원용당은 순천시에서 북쪽으로 2km 지점에 있으며 동남방향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원래 원산(圓山 :도리피, 현재 삼산) 밑의 북서쪽 공동묘지인 곳에 원산마을이 있었다는데, 원인 모를 괴병이 발생하여 마을이 폐촌되자 원용당으로 내려와 마을을 형성하였다 하며, 통칭 용댕이라고 한다.

업동(業洞)

업동은 정지등, 정자촌(亭子村)이라고도 한다. 이 정지등은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장소를 말하며, 등은 고개를 말한다. 업은 가상적인 동물(뺨)을 지칭하며, 불교에서 선악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뒷산인 봉화산(봉대산·성황당산)을 업는 마을이라는 뜻도 있다. 봉화산과 가까워 옛날의 봉수꾼 마을이 아니었는가 추측된다. 정자등(정자촌) 서남쪽에는 갯변물(갯변마을)이 있으며, 업동과 망북 사이에 대나무가 많은 죽촌(황촌)마을이 있다.

⑥ 조곡동(稠谷洞)

조곡동은 본래 순천군 소안면 지역으로서 조곡·독실이라 하였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읍전리 일부를 병합하여 조곡리라 해서 순천면에 편입되고, 1949년 동제 실시에 따라 조곡동이 되었다.

읍전(栗田, 장대)

읍전은 죽도봉 밑 남쪽 마을을 말하며, 옛날엔 이곳에 밤나무가 많아서 읍전이라 했다. 또한 1743년(영조 19)에 군사들이 진을 치고 군사를 지휘하는 곳을 돌로 쌓아 지휘했다 하여 장대(將臺)라고도 하는데 1880년 고지도에 장대로 나타나며, 진을 쳤던 곳으로 확인되었다. 동외동의 환선정(喚仙亭)이 이곳으로 옮겨왔다.

독실

독실마을은 순천 시가지에서 동쪽으로 1km 지점에 위치하며, 동남방향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마을 앞으로 동천(東川)이 흐르고 있다. 독실은 통칭 큰동네라 하는데, 마을이름의 유래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대나무가 많은 것을 두고 죽(竹)자를 써서 죽실(竹實)이라 하고 대밭밭이라 하며, 둘째는 송아지 독(犢)자를 써서 독실이라 불렀고, 셋째는 독이 있는 골짜기라 하여 독실이라 했다고 한다. 흔히 독실, 조곡(稠谷)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철도관사 북쪽에 있는 마을을 재경골(自京谷)이라 하며, 독실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1936년 10월 전라선 개통 때 생긴 마을은 철도관사라 한다.

⑦ 덕연동(德蓮洞)

덕연동은 1949년 8월 15일 동제 실시에 따라 덕암·생목·연향의 3동을 합하여 덕연동이라 했다.

덕암동(德岩洞)

덕암마을은 본래 순천군 소안면 지역으로 순천시에서 동남방향으로 2km 지점에 위치하며, 쌀앙등으로 불리다 덕암(德岩)이라는 한자로 개칭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화리·구암리·생목리·율전리의 각 일부와 장평면의 상평리 일부와 해촌면의 명말리·운동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덕암리라 해서 순천면에 편입되었다.

구암(龜岩)

구암마을은 순천시에서 동쪽방향으로 3km 지점에 위치하며, 마을터가 거북이 형상을 하고 있다. 거북이의 어깨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마을을 이루고, 거북이의 머리가 백호등이 되어 덩바구라 부르고 있다.

신아(新阿)

신아마을은 순천 시가지에서 동남방향으로 2km 지점에 있으며, 남서쪽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임진왜란 당시 왜적들이 바다를 건너와 북상(北上)을 시도하다가 아군들에게 피해를 당한 지역이 이곳 신아이다. 신화(薪化)마을이라고도 한다.

생목동(生木洞)

생목마을은 순천시에서 동쪽으로 4km 지점에 위치하며, 마을 앞으로 광양선 도로가 있고, 마을 고개에는 수백 년 된 당산나무가 있다. 부목(父木), 모목(母木), 자목(子木)이 있는데, 자목이 고사 직전에 있을 때 마을주민들이 목욕재계를 하고,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니 소생하였다. 그때부터 자목이 소생하였다 하여 생목(生木)이라 하며, 정월 초하룻날은 당산제를 드린다. 이 마을은 본래 순천군 소안면 지역으로 산삼의 목이 되므로 삼목이 변하여 생목 또는 생동이 되었다고도 하는데, 1919년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해촌면 운동리 일부를 병합하여 순천면에 편입시켰다.

성황사(城隍祠)

성황사(당골)는 고려시대부터 성황행사를 행하여 내려오던 곳이다. 이 지방을 수호해주는 산신들에게 제사하는 곳으로, 순천시 생목동 뒷산인 성황당산에 모셔오다가 1895년(고종 32)에 폐지되었다.

연향동(蓮香洞)

연향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동쪽방향으로 4km 지점에 위치하며, 남쪽을 향해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이 마을이 처음 생겼을 때는 마을 한복판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 연꽃이 많이 피어 향기가 사방으로 진동하였다고 해서 연향이라 불렀다 한다. 이 마을은 본래 순천군 해촌면 지역으로서 일제의 행정개편에 따라 대석리·율산리·명말리·운동리·마새리·용곡리·두지리의 각 일부와 용두면의 상삼리를 병합하여 연향리라 하여 해룡면에 편

입되었다가, 1949년 순천시에 편입되어 덕연동 관할이 되었다.

대석(大石)

대석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광양 방향으로 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방 전까지만 해도 대추쟁이라고 했다. 이 마을에 대추나무가 많았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큰 돌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대석(大石)마을로 바뀌었다.

율산(栗山, 도장굴)

율산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동남방향으로 7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마을의 최초 명칭은 도장굴(刀藏窟)이었는데, 옛날 한양에서 살던 선비가 낙향하여 이 마을 뒷산에 보검(寶劍)을 감추었다고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뒤 마을 주위에 밤나무가 많다고 해서 밤나무골, 즉 율산이라 했다.

명말(楡末, 흙끝)

마을 위쪽에 좋은 샘이 있어서 온 마을 집들이 흙대를 이어서 물을 받아 먹었다고 해서 흙끝이라는 마을이름이 생겼다. 한자말로 명말(楡末)이라고 한다. 철길을 넘어서 덩바구(九岩)가 마주보고 있다.

⑧ 풍덕동(豊德洞)

풍덕동은 본래 순천군 장평면 지역이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평리 일부와 해촌면의 연하리·마산리의 각 일부와 도리면의 오산리·오림리의 각 일부를 병합, 풍덕리라 하여 순천면에 편입하고, 1949년 동계 실시에 따라 풍덕동이 되었다.

상풍(上豊)

상풍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동남쪽으로 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수 쪽 도로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1800년대 지금의 상인제동 역골(役谷, 엽골)에 거주한 주민이 말의 훈련장과 밭으로 이곳을 이용하면서 역밭이라고 하였다. 조산(造山)·원풍(元豊)·상풍으로 불리기도 하였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풍덕동에 편입되었다.

하풍(下豊)

하풍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동남쪽으로 4.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수 방향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처음에 이 마을에 윤씨(尹氏)가 많아 윤촌(尹村)이라 불렀으며 산이 없고 들로만 이루어진 평평한 땅이기 때문에 평촌(平村)이라 불렀다 한다. 그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하풍이라 하였다.

⑨ 남제동(南蹄洞)

1949년 8월 15일 동계 실시에 따라 남정동과 인제동을 합하여 남제동이라 하였다.

남정동(南亭洞)

남정동은 본래 순천군 장평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흥정 남제리와 도

리면의 지정리 일부를 병합, 남제와 신흥정의 이름을 따서 남정리라 하여 순천면에 편입되었다.

신흥(新興)

신흥마을은 글자의 뜻대로 새롭게 흥한다는 뜻으로, 신흥쟁이라고도 부르고 있으며 남정동에 있는 마을이다.

인제동(麟蹄洞)

본래 순천군 장평면 지역으로 인제산(시산천) 밑이 되므로 인제라 하였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순천면에 편입되었고, 1949년 동제 실시에 따라 남제동 관할이 되었다. 『여지도서(輿地圖書)』를 보면 순천시 이사천(伊沙川)에 놓인 다리가 양률교이고 거기에 역이 있었다.

그리고 인제동이 속칭 역골이라고 전해오는데 이것으로 여기에 역이 있었을 것이라고 억측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순천마을 유래지』에는 ‘역골’이 자음역행동화 현상 때문에 열골→엽골→역골로 변환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역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곳에서 양률 역원들이 살았거나 목장지로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⑩ 저전동(楮田洞)

저전동은 본래 순천군 장평면 지역으로서 딱밭이 있었으며, 딱밭·닥밭·저전이라 하였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지막리·경내리·장명리 일부를 병합하여 저전리라 해서 순천면에 편입되었다.

갈마곡(渴馬谷)

갈마곡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서남쪽으로 0.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방향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당초에는 다마골이라 칭하였는데, 말이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있는 형국이라 하여 갈마곡이라 칭한다. 해방 후 저전동(楮田洞)이라 칭하였는데 저전동의 저(楮)자는 닥나무 저자로 종이 만드는 나무를 많이 재배하여 한지를 생산하였다 해서 생긴 명칭이다.

⑪ 장천동(長泉洞)

장천동은 본래 순천군 장평면 지역으로서 장천이라 하였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으로 장행리·장명리 일부를 병합하여 장천리라 해서 순천면에 편입되고, 1949년 동제 실시에 따라 장천동이 되었다.

⑫ 중앙동(中央洞)

중앙동은 1949년 왜식 동명 변경에 따라, 순천시의 복판이 되므로 중앙동으로 고치고 동제 실시에 따라 동외·중앙·남내의 3동을 관할했다.

중앙마을은 순천 시가의 중심지로서, 순천의 취약형태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옥천동·임청대 밑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차차 동쪽으로 뻗어나갔다. 그리하여 남문교(南門橋)에 이르렀고, 그곳을 중심으로 동편은 동천부락이 형성되었다. 이 마을은 조선 말기에는 소안면과 장평면이라 했고, 1914년 일제시대에 접어들어 소안면을 대수정이라 불렀다. 해방 후에는 소

안면과 장평면 일부를 행정상 중앙·남내·동외동이라 불렀는데, 이 3개 동을 합쳐 중앙동이라 불렀다.

남내동(南內洞)

남내동은 본래 순천군 소안면 지역으로서 순천읍성 안쪽이 되므로 남문안 또는 남내라 하였다. 왜식으로 본정이라고 하였다가 1949년 동명 변경으로 남내동이라 고치고 중앙동의 관할이 되었다.

동외동(東外洞)

동외동은 본래 순천군 소안면 지역으로서 순천읍성의 동문 밖이 되므로 동문밖 또는 동외라 하였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으로 우명리 일부를 병합하여 동외리라 해서 순천면에 편입되고, 1949년 동제 실시에 따라 중앙동의 관할이 되었다.

⑬ 대평동(大坪洞)

대평동은 1949년 8월 15일 동제 실시에 따라 교량·홍내·대룡의 3동을 합하여 대평동이라 했다.

교량동(橋良洞)

교량동 또는 다리목은 본래 순천군 도리면 지역인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교항리·양률리의 각 일부와 하사면의 대룡리 일부를 병합하여 도사면에 편입되었다. 그후 1949년 8월 14일 순천시에 편입되어 교량동의 관할이 되었다.

선월(船月)

선월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서남쪽으로 6km 지점에 있는 넓은 들로 곡창지대이며, 처음에는 다리목이라 하였다가 후에는 순천군 도리면 교량리로 개편되었으며, 다시 순천시 교량동 선월로 되었다.

선평(船坪)

선평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남으로 약 6km 지점에 있으며 북쪽은 오천동, 서쪽은 야흥동, 남쪽으로 대대동과 접하고 있다. 처음에는 다리목이라 하다가 순천군 도리면 교항리(橋項里)로 바뀌었으며, 그뒤 순천군 도사면 교항리에서 선월마을과 선평마을로 분리되었다.

양률(良栗)

양률은 선월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연동(淵洞)이라고도 하며, 옛날에 역촌(驛村)이었다.

홍내동(鴻內洞)

홍내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남쪽으로 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량과 대대(大垔)마을이 접하고 있고, 서쪽으로 이사천이 흐르고 있다. 이 홍내마을은 후백제시대부터 현 홍내동 일원과 오천동 오림마을까지를 합하여 홍두(鴻頭)라고 불렀다 한다. 그뒤로 고려 충렬왕 때인 1275년에 순천부사 최석(崔碩)이 홍두(鴻頭) 안동(安東)으로 개칭하였고, 일제시대인 1909년

당시 도리(道里)·하사(下沙) 두 면을 합병하여 도사면으로 개칭하면서부터 홍두·내동(內洞)·금성(金星)으로 불렸다.

홍내동은 본래 순천군 도리면 지역이었는데, 1914년 일제의 행정개편에 따라 금성리·내동리 전체와 홍두리·교항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홍두와 내동의 이름을 따서 홍내리라 해서 도사면에 편입되었으며, 1949년 순천시로 편입되어 대평동의 관할이 되었다.

금성(琴聲)

금성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동남방향으로 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에 도사초등학교가 있다. 마을 뒷산의 형국이 거문고처럼 생겼을 뿐만 아니라 골짜기가 거문고 줄처럼 뻗어 내리고 있으며, 숲속에서 바람이 일면 거문고 소리같이 들린다 한다.

내동(內洞)

내동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남쪽으로 4.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당초에는 기러기골이라 했다고 하며, 마을 형국이 기러기처럼 생겼다 해서 홍도(鴻道)라 하였다. 해방 전까지도 도리면 직강소가 내동에 있었다. 홍두부락이 기러기의 머리부분이라면 내동부락은 그 몸에 해당되어 안동, 즉 내동으로 되었다.

대룡동(大龍)

오룡마을은 순천시에서 동남방향으로 7km 지점에 위치하고, 벌교 도로변에 인접해 있다. 오룡의 이름은 대동회관 자리의 연못 옆에 작은 동산 5개가 쌍둥이처럼 붙어서 불려진 명칭이다. 대룡동은 본래 순천군 하사면 지역인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오룡리·대동리·연화리·무평리·도리면의 일부를 병합하고, 대동과 오룡의 이름을 따서 대룡리라 하여 도사면에 편입되었다. 그후 1949년 순천시로 편입되어 대평동 관할이 되었다.

신전(新田)

신전마을은 순천시에서 남쪽으로 7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순천·도청(盜廳, 道靑)이라 부르기도 한다. 신전은 해방 이후 포전(채소밭, 무밭)이 많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1910년까지는 순천군 하사면에 속해 있다가 도사면이 되었다.

대동(大洞)

대동마을은 순천시에서 남쪽으로 7.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맨 처음 마을터는 지금의 마을에서 전방 남쪽 1km 지점에 있었으며, 그곳을 서재골이라 불렀다고 한다. 서재골이란 서당을 말하며, 그후 대동마을로 개칭되었다.

⑭ 덕흥동(德興洞)

1949년 8월 15일 동계 실시에 따라 덕월·야흥·오천의 3동을 합하여 덕흥동이라 한다.

덕월동(德月洞)

덕월동은 본래 순천군 도리면 지역으로,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선암리·월곡리·덕흥리·지정리·교곡리·호현의 각 일부를 병합하고, 덕흥과 월곡의 이름을 따서 덕월리

라 하여 도사면에 편입되었다가 1949년 덕월동의 관할이 되었다.

선암(仙岩)

선암(선암바구)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서남쪽으로 4km 지점에 위치하며, 서쪽 1km 지점에 이사천이 흐른다. 옛날에는 이 마을 뒷산에 선암사(仙岩寺)가 있었는데 빈대 때문에 옮겨갔다고 한다.

지정(枳亭)

지정마을은 덕흥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순천 시가에서 남쪽으로 2km 지점에 위치한다. 옛날엔 부(府)의 중심에서 오리(五里)가 되는 지점에 정(亭)이 있었는데, 단순히 거리만 나타내던 곳이 아니라 부사들의 도임과 작별전송을 하였던 장소이기도 하였다. 북쪽은 오리정(五里亭), 남쪽은 현재 철길 옆 들판으로 들어가는 정자가 있었다 한다. 그 정자 주위로 탕자나무(枳)가 있어서 지정(枳亭)이라 했다 한다.

월곡(月谷)

월곡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남쪽으로 4km 지점에 위치하며, 마을 앞으로는 이사천이 흐르고 있다. 이 마을은 높은 산에서 바라다보면 마치 달모양처럼 생겼다 하여 월곡이라 한다.

소라(召羅, 조랫골)

소라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남쪽으로 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면 그 전후로 며칠 동안 뒷산이 “웅” 하고 우는 것처럼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소라를 부는 소리와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신곡(新谷)

신곡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남쪽으로 4km 지점에 위치하며, 마을 앞으로 이사천이 흐르고 있다. 이 마을은 길이 높다 하여 어덕촌(언덕촌)이라 했으며, 갈마골·갈마곡(渴馬谷)이라 하다가 1979년 취락구조사업 때 새로 마을이 형성되어 신곡이라 한다.

교곡(橋谷)

교곡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서북쪽으로 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북쪽으로는 상사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처음에는 인접마을과 이어지는 다리구실을 하는 마을이라고 해서 ‘다래골’이라 하였다. 그후 교곡이라 기록되기도 하였으나 다래골로 더 많이 불린다.

덕흥(德興)

덕흥마을은 월곡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덕흥동사무소가 호현(胡現, 되고개)마을에 자리하고 있으며, 시 중심에서 약 2.5km 지점에 있다. 정자가 있었으며, 덕정(德亭)마을이라고도 한다. 1949년 8월 15일 동계 실시에 따라 덕월·야흥·오천의 3동을 합하여 덕흥동이라 했다.

신산(新山)

신산마을은 당초 오천동 개재마을 앞에 형성된 마을이었으나, 마을 전체가 매년 수해로 어려움을 겪다가 1989년도에 덕월동의 호현 앞으로 이주했다.

호현(胡現, 돌마당·되고개)

호현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남쪽으로 2.5km 지점이며, 덕흥동사무소가 있다. 이사천에서 흘러 나오는 물이 호현마을 앞에 와서 다시 한 바퀴 돌아 통천마을 앞을 지나 대대 쪽으로 빠져 든다고 해서 돌마당이라 부른다. 호현은 되고개(높은 고개를 넘으면 힘이 든다)가 되고개로 변한 것이라고도 하며, 몽고(원나라) 지배시절의 지명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덕흥 동쪽에는 도깨비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오천동(五泉洞)

본래 순천군 도리면 지역인데, 1914년 일제의 행정개편으로 오림리·오산리·통천리·호현리의 각 일부와 장평면의 하평리 일부를 병합하고, 오림과 통천의 이름을 따서 오천리라 했다. 도사면에 편입되었다가 1949년 순천시에 편입되어 덕흥동의 관할이 되었다.

오산(五山, 개재)

오산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남쪽으로 3.5km 지점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동남쪽에는 오림(五林)마을이, 뒤편에는 망월 대산이 인접해 있다. 이 마을은 동·남·서쪽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만이 트여 있는데, 다섯 봉우리가 있어서 오산이라 했다. 또한 마을 뒷산의 모양이 개의 생김새와 같다 하여 오산(獒山)이라고 한다. 동천은 현재 둑으로 막혀 있지만, 과거에는 이 마을 앞으로 흘렀다.

오림(五林)

오림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동남쪽으로 4km 지점에 있으며, 동천을 끼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이 마을은 신윤보가 이곳에 퇴거한 후 도사 동천변에 오림정(五林亭)을 짓고, 포구에 솔(松)·비자(비파나무)·복숭아·매화·대 5종류의 나무를 심어 오림이라 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통천(桶泉, 통새미)

통천마을은 순천시에서 남쪽으로 4km 지점에 있으며, 오림·오산마을과 인접해 있다. 이 마을은 나무샘이 있는데, 이 샘에서 물이 아주 많이 나온다고 해서 통천이라 부르게 되었다. 1854년(철종 5)에 순천을 덮친 큰 물난리 때 그 마을사람들 중 일부가 통천마을로 와서 터를 잡고 살았다고 한다.

야흥동(也興洞)

본래 순천군 하사면 지역으로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부흥리·야동리·신대리와 도리면의 양률리 일부를 병합하면서 야동과 부흥의 이름을 따서 야흥리라 이름하였다. 도사면에 편입하였다가, 1949년 순천시에 편입되어 덕흥동의 관할이 되었다. 마을 주변의 산맥이 마치 야(也)자를 닮았다 하여 야흥이라 했다고 한다.

부흥(復興, 범도리)

부흥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서남쪽으로 5.5km 지점에 있으며 동남방향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마을 측면으로 경전선 철도가 지나고 있다. 부흥마을은 호랑이굴이라는 뜻의 '범덩이굴'로 불렸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부흥이라 개칭되었다. 마을사람들은 아직도 '범덩이굴'로 부르고 있다.

신대(新垔)

신대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남쪽으로 5km 지점에 위치하며, 동서방향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이사천이 벌교로 가는 고속도로변에 접해 있다. 원래는 야흥마을 안에 있었으나 마을 사업과 동시에 새로 터를 잡아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신흥(新興)이라고도 한다.

⑮ 인안동(仁安洞)

1949년 8월 15일 동계 실시에 따라 대대·인월·안풍 3동을 합하여 인안동으로 했다.

대대동(大垔洞)

대대마을은 순천시에서 남쪽으로 7km 지점에 위치하고, 마을 앞으로 고가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부락이 크다 하여 대대라 하였으나 1914년 일제가 대(大)자 호칭을 금하여 하대(下垔)로 부르다가 해방 후 명칭이 회복되었다.

하내(下內, 동너리)

하내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남으로 6km 지점에 위치하며 마을 동쪽으로 이사천이 흐르고 있다. 옛날부터 이 마을을 서당골이라 불렀다 한다. 또한 동널·동너리라 불렀는데, 마을 앞으로 흐르는 구강의 동쪽에 나루터가 있어서 동나루터라는 것이 와전되어 동너리·동널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그리고 해방 후 행정구역 개편 때 하내로 개칭되었다.

금전(錦田)

금전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남쪽으로 6km 지점에 위치하며, 마을 동쪽으로 이사천이 흐르고 있다. 옛날엔 이 마을이 연화부수(蓮花浮水) 형국으로 생겼다 하여 연화동(蓮花洞)이라 불렀다. 해방 후에 마을의 고추밭에 붉게 익은 고추가 비단물결 같다 하여 금전(錦田)이라 하였다.

인월동(仁月洞)

인월동은 본래 순천군 하사면 지역인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인덕리(仁德里)·월평리(月坪里)·조례리(照禮里) 일부를 병합하여, 인덕과 월평의 이름을 따서 인월리라 했다. 도사면에 편입되었다가 1949년 순천시에 편입되어 인안동의 관할이 되었다.

조례(照禮)

조례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남쪽으로 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방향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서남쪽에 인안초등학교가 있다. 조례는 예의(禮)가 으뜸이라는 뜻에서 마을명을 지은 것이며, 아름답다는 뜻도 된다고 한다. 또한 마을의 형국이 북조리와 같다는 뜻이기도 하다.

안풍동(安豊洞)

본래 순천군 하사면 지역인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수동리·하흥리·안지리·간동리·신평리·하내리 일부를 병합하여 안지와 신평의 이름을 따서 안풍리라 하였다. 도사면에 소속되었다가 1949년 순천시에 편입되어 인안동의 관할이 되었다.

수동(水洞)

수동마을은 순천시에서 남쪽으로 8km 지점에 위치하며, 북쪽에는 원당골이 있다. 본래부터 이 마을은 물이 맑고 좋아서 물골이라 했으며, 현재는 없지만 산의 지하수는 맑고 시원했다 한다. 이 마을은 임진왜란 당시 박학룡(朴鶴龍) 장군이 전장에서 싸우다 전사한 뒤 당시 선조의 명으로 안풍동 원당곡(原堂谷)에 시신 없이 영(靈)을 모시고 안장시켰으며, 그 후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

간동(間洞)

간동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남쪽으로 8km 지점에 있으며, 남서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이 마을은 골짜기가 유달리 깊어 셋골이라 부르다가 해방 직후 이름을 한자로 고쳐 간동이라 하였다.

경기도 광주 출신인 운전(雲田) 서국립(徐國立)이 임진왜란 당시 이충무공의 의병으로 신성포전투에 참가한 두 아들을 따라 피난하여 간동에 기거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한다. 이 마을은 신평 서쪽에 있다.

신평(新風, 새물)

신평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남쪽으로 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방향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신평은 마을에 풍년이 깃들기를 기원한다는 뜻이다. 간동마을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마을을 이루었다 해서 새물(새마을)이라 부르다가, 1914년 일제 행정구역 개편 때 신평이라 했다.

안지(雁址)

안지마을은 기러기 형국의 마을형세 또는 마을 앞 순천만에 수백 마리의 기러기들이 떼를 지어 날아왔다 하여 안지(雁址)로 불렸으며, 후에 안지(安之)로 바뀌어졌다 한다.

⑩ 왕조동(旺照洞)

본래 순천군 해촌면 지역으로서, 1914년 일제의 행정개편으로 대동리·현남리·왕지리·운곡리·범암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왕지리라 하고 해룡면에 편입되었다가, 1949년 순천시에 편입되어 왕조동이 되었다.

왕지(旺之)

왕지마을은 순천시에서 동북쪽으로 8km 지점에 있으며, 서쪽으로 여순간 우회도로가 인접해 있다. 이 마을에는 당초에 왕씨(王氏)들이 못자리를 이루듯 살았다 하여 왕지(王之)라고 표기되었는데, 일제시대에 왕지(旺之)를 임금이 지나간 자리라고 잘못 전해져 지금껏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 마을에 왕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조선이 들어서면서, 왕씨들이 역적으로 몰려 멸족되면서 왕씨(旺氏)로 바꾸어 떠났다고 한다.

운곡(雲谷)

운곡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동쪽으로 5km에 위치하며, 동남방향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양씨(梁氏)가 이거하였을 때 마을 골짜기에 언제나 구름이 깔려 있는 것을 보고 구름이 쉬어가는 운곡이라 이름하여 지금까지 불러오고 있다.

범암(帆岩, 돛대바구)

범암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동북쪽으로 4km 지점에 위치하고, 동남방향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북으로 서면과 남으로는 여수 방면도로와 접하고 있다. 1813년(순조 13)에 해일이 일어나 거센 바닷물이 이 마을까지 들이닥쳤다. 이때 마을 앞에는 두 개의 바위가 있어 주민들이 이 바위로 피하게 되었는데 피신한 사람들 이외는 살아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리하여 돛대 범(帆)자와 바위 암(岩)자를 썼다 한다.

현남(峴南)

현남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동쪽으로 6km 지점에 위치하며, 마을 북쪽으로 옥녀봉이 있다. 원래는 설(雪)자를 써서 설남(雪南)이라 하였는데, 고개가 많아서 고개 현자를 붙였다 한다.

대동(大洞)

대동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동쪽으로 10km 지점에 있으며 북으로는 서면, 동으로는 광양읍, 남으로는 해룡면에 접하고 있다.

조례동(照禮洞)

조례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동쪽으로 4km 지점에 위치하며 동서방향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강남여자고등학교와 순천병원이 있다. 마을의 형국이 조리모양으로 생겼다 하며, 마을이 남쪽으로 툇 트여서 맑고 환하게 비쳐져 밝음으로 예의를 지키고 살 만한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우명(牛鳴)

우명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동쪽에 있으며 동서방향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광양선 도로변에 인접해 있다. 옛날엔 이 마을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이곳의 물이 항상 조금씩 흘러나와 소의 코에 물 흐르듯 마치 소가 울고 있는 모습 같다 하여 우명이라고 했다.

운동(雲洞, 굽실)

운동마을은 순천 시가지에서 광양쪽 방향으로 4km 지점에 위치하며, 남쪽방향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순천동산여중과 순천공고가 있다. 옛날에는 원당곡이라 부르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운동으로 개칭되었다. 이는 마을 뒤편 봉화산에 구름이 쉬어간다 하여 생긴 이름이라 한다.

신월(新月)

신월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동쪽으로 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남방향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여순·순천우회도로와 접하고 있다. 마을의 형국이 마치 반달모양으로 꺾여 있다고 하여 신월이라 하였다. 만월 형태가 아니고 반월(半月)형이어서 부자 마을이 되지 못한다는 설이 있다.

신대(新垔, 새터)

신대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동북쪽으로 4km 지점에 위치하며 동서방향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선혜학교와 왕조동사무소가 있다. 처음에 신대와 신월마을은 같은 마을이었는데, 해방 후에는 마을 앞으로 도로가 나면서 신월과 신대마을로 나뉘었다고 하며, 신대라는 이름은 새로 터를 잡은 마을이라 해서 붙여진 것이라 한다.

연동(蓮洞)

연동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동쪽으로 5km 지점에 위치하며 동남방향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해룡면과 광양군의 경계에 접하고 있다. 조례동에 있는 마을로 연못이 있었다. 이곳은

연꽃이 물에 떠 있는 형국이라 하여 연동이라 한다.

비봉(飛鳳)

비봉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동쪽으로 4.5km 지점에 위치하며, 동남방향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마을 앞으로 여수·순천우회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조례저수지와 봉화산이 감싸고 있다.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명당자리인 이 마을은 봉이 알을 품고 있으면서 사람이 근처에 접근해도 날아가지 않는다는 비봉포란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두지(斗旨)

두지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동쪽으로 5km 지점에 위치하며 동서방향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마을의 북동쪽에 매봉산이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 형국이 쌀뒤주의 모양 같아서 두지마을이라 했다.